

Actes Sud ‘한국문학총서’ 연구

이가은·정우경(서울대학교)

- 목차 -

1. 서론
2. Actes Sud ‘한국문학총서’ 특징 분석
3. Actes Sud ‘한국문학총서’의 파라텍스트
: ‘한국문학’을 초과하는 ‘한국문학’
4. 남은 과제들

1. 서론



19901010 「경향신문」

19911029 「경향신문」

19930921 「조선일보」

19940527 「동아일보」

80년이후 31권...
을테이 「토지」에

한국문학 佛속개활기

1. 서론



화제의 인물

“프랑스문단에 우리 소설 바람 인다”

한국문학의 佛譯소개 애쓰는 최현무교수

우리문학이 ‘한국’이라는 좁은 테두리를 벗어나 세계 속에 우뚝해나 자리매김하는 데는 91년을 특별히 기억해야 할 듯하다. 그것은 우리 문학의 해외소개가 예년에 비해 속도적으로加快되었다는 외형의 문제라기보다는, 한국문단을 “강타했다”고 표현될 만큼 우리의 작가와 작품이 전례없이 그쪽 독서계의 출기찬 관심의 표적이 되고 있어서다.

지난년 말부터 작가 이문열에 대한 뉴라움에 가까운 친사로 시작된 프랑스문단의 관심은 거의 모든 신문들이 서평란을 통해 악트쉬드 출판사가 발행하는 ‘한국문학총서’에 대해 언급했고, 최근에는 프랑스내 가장 진보적인 성격의 신문으로 불리는 리베라시옹이 직접 특파원을 보내어 이정준, 조세희, 이균영, 이문열 등 한국문학총서에 실린 작가들을 인터뷰한 기사를 대목적으로 실기도 했다.

보다 한국에 좋은 작품들이 많으니 소개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역으로 제안, 출판분량이 잘 맞히는 프랑스독자들을 감안하여 고른 우리소설 10여편을 작가소개 작품개요 등을 함께 작성, 출판사측에 보여주자 한두권의 단행본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아예 시리즈로 내고 싶다고 욕심을 내더라는 것.

“내가 좋아하는 우리의 문학을 프랑스 독자들에게도 읽히고 싶다는 문학도로서의 소망에 제안한 것인데 ‘한국문학총서’로 예정없이 규모가 커져버리자 달력 깊이 나더군요. 거창하게 시작해놓고 안풀리면 어찌하나 걱정도 됐습니다.”

87년부터 이야기가 나와 준비작업을 거쳐 첫책을 내놓은 것은 90년 2월, 이문열의 「금지조」가 첫권이었다. 이어 「율」(5월) 「우리들의 일」

“내가 좋아하는 우리의 문학을 프랑스 독자들에게도 읽히고 싶다는 문학도로서의 소박한 욕심에서 제안한 것인데 ‘한국문학총서’로 예정없이 규모가 커져버리자 달력 깊이 나더군요. 거창하게 시작해놓고 안풀리면 어찌하나 걱정도 됐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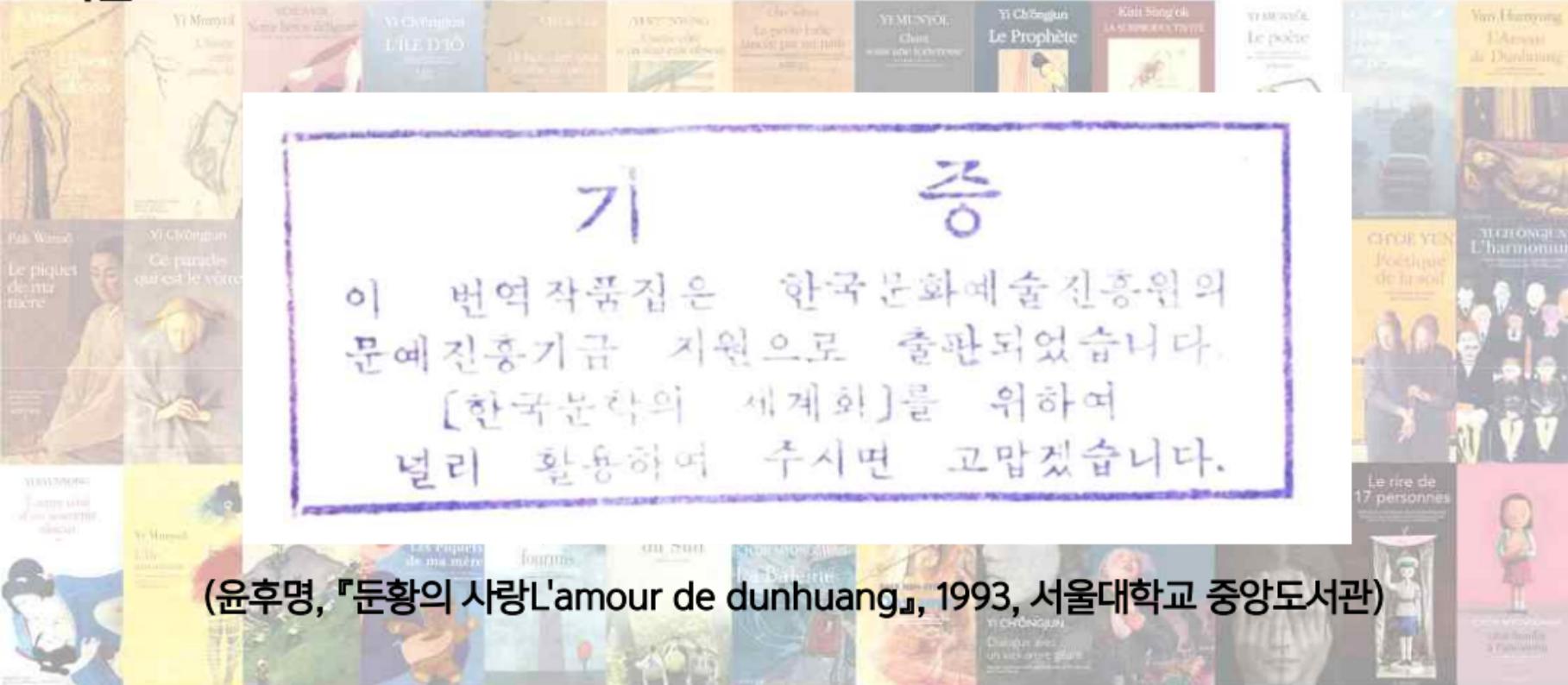
정혜옥,『출판저널』94, 대한출판문화협회, 1991, 25면.



1. 서론



1. 서론



증

이 번역작품집은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의
문예진흥기금 지원으로 출판되었습니다.
[한국문학의 세계화]를 위하여
널리 활용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후명, 『둔황의 사랑 L'amour de dunhuang』, 1993,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1. 서론

- 프랑스 내에서 한국문학 번역 및 출판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시기는 1990년대.
- **최윤·파트리 모뤼스**의 기획 아래 이루어진 **악트 쉬드Actes Sud**의 **한국문학총서La série “Lettres Coréennes”(1990~2016)**는 1990년대 프랑스에서 한국 문학 번역을 선도.
- 문예진흥원·대산문화재단·한국문학번역금고(→한국문학번역원)가 주도했던 ‘한국문학의 세계화’.
- 이문열·이청준·최인훈이 맺은 대리행위 계약contract de representation(1992년 1월, 한국·중국·일본을 제외한 모든 나라에서 작가의 유일한 대리인이 되어 작가의 과거·현재·미래 작품에 대한 권리를 대리인에게 위임.)은 베른협약 규정 준수를 명문화함으로써 **한국문학 해외소개부문에 저작권 개념을 성립**시킨 사건. (곽효환, 「한국문학의 해외소개 연구」, 건국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40-45면. 41-43면에 이청준이 연구자에게 제공한 계약서 전문 수록.)
- 유승희, 「최윤 소설의 역사기억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1.
→ 1990년대 당시 국내 언론 보도 자료를 검토하며 ‘**한국문학의 세계화**’라는 맥락 속에서 악트 쉬드의 **한국문학총서**가 가졌던 의미를 부각.
- 장주영·서세림, 「악트 쉬드(Actes Sud) 한국어 문학 총서 발간의 의미 : 제도적 번역 지원과 출판사 총괄 기획의 효과」, 『다문화콘텐츠연구』, 중앙대학교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2023.
→ “악트 쉬드의 기획을 전체적으로 개괄하려는 시도”(67면). 1990년대의 번역 현황 소개를 넘어, 2016년까지 **전체 목록을 확인하고 서지를 정리한** 연구.

1. 서론

– “이것이 프랑스 문학계와 언론으로부터 크게 주목을 받았다. 또한 이 영향으로 이들 작품은 다시 **영국·이탈리아·네덜란드·터키 등지에서 번역·출판되는 성과를 낳았다.**” (곽효환, 「세계문학으로 서의 한국문학 현황과 전망」, 『한국문예창작』 54, 한국문예창작학회, 2022, 20면.)

– “**영국에서는 전쟁이 끝난 후 번역 소설 출판을 전문적으로 하는 하빌 출판사(Harvill Press)가 설립되었다.** 러시아와 동유럽 국가들의 작품 위주였고, 이탈로 칼비노(Italo Calvino)나 마르그리트 뒤라스(Marguerite Duras) 같은 유럽 중요 작가 및 전 세계 유명 작가들도 포함했다. **착실히 명성을 쌓아가던 이 출판사의 크리스토퍼 매클호즈(Christopher MacLehose) 사장은 어느 날 문득 한국 작품을 출판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당시 그 어느 곳에서도 구할 수 없는 책이었기 때문이다. **사장의 프랑스인 아내가 악트쉬드 출판사의 한국 작품들을 검토한 후, 이문열의 소설 《시인》이 가장 흥미롭다고 결정했다.**” (안선재, 「번역 속의 한국문학」, 『한국문학을 K문학으로 만든 번역 이야기』, 김영사, 2023, 245면.)

1. 서론

● 발표의 목표

- 1차 자료로서 총서의 서지상 특징을 다각도로 검토.
- 1990-2016 프랑스 내 한국문학 번역 전략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서 한국문학총서 검토.
- 총서가 기획되었던 1980년대부터 2016년까지 한국문학 비평 '텍스트'로서의 한국문학총서. 파라텍스트들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며 '한국문학총서'라는 텍스트가 만들어내는 상을 확인.
- 프랑스의 한국(문)학 연구의 자료로서 한국문학총서를 검토함으로써, 국내 한국학과 프랑스 한국학의 대화 기반 마련.

2. Actes Sud '한국문학총서' 특징 분석

40권

-증편/장편: 31권
-선집/연작: 9권

34 작가

-남한: 24명
-북한: 10명

15 번역가

-한국: 8명
-프랑스: 7명

2. Actes Sud '한국문학총서' 특징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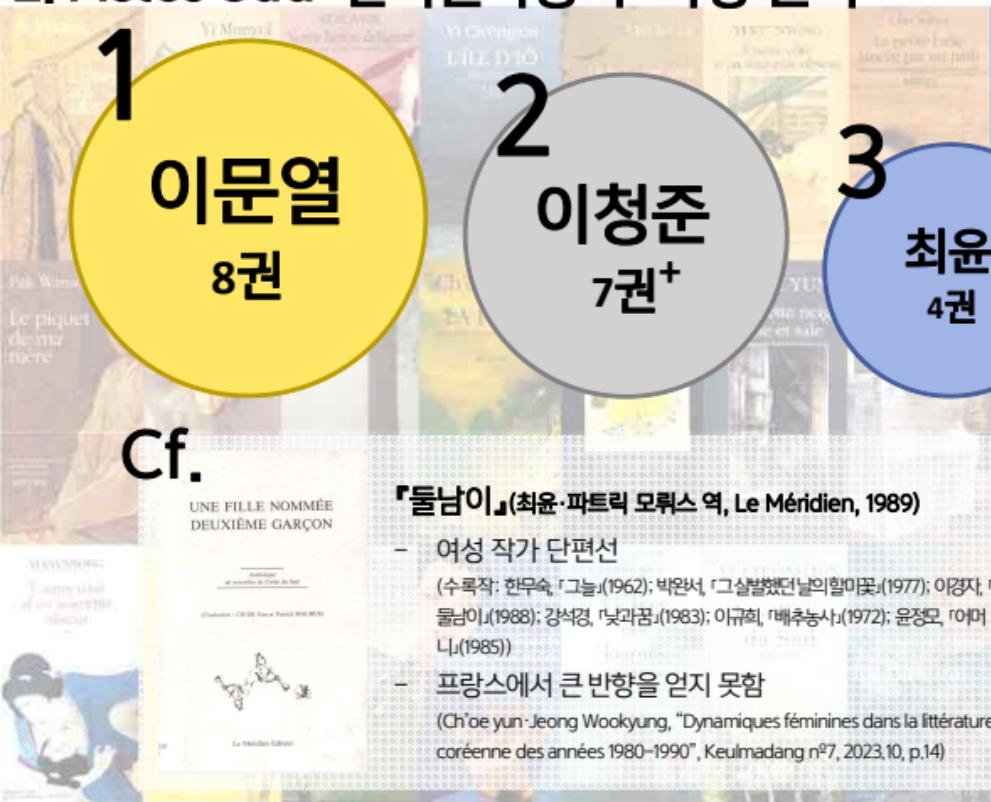
	1기	2기	3기
시기	1990 ~ 1993	1994 ~ 2003	2006 ~ 2016
기획	LETTRES CORÉENNES série dirigée par Ch'oe Yun et Patrick Maurus	LETTRES CORÉENNES série dirigée par Patrick Maurus	
번역	roman traduit du coréen par Ch'oe Yun et Patrick Maurus		roman traduit du coreen par Patrick Maurus
주요 작품	         	         	         

2. Actes Sud '한국문학총서' 특징 분석

1

이문열
8권

Cf.



2

이청준
7권⁺

3

최윤
4권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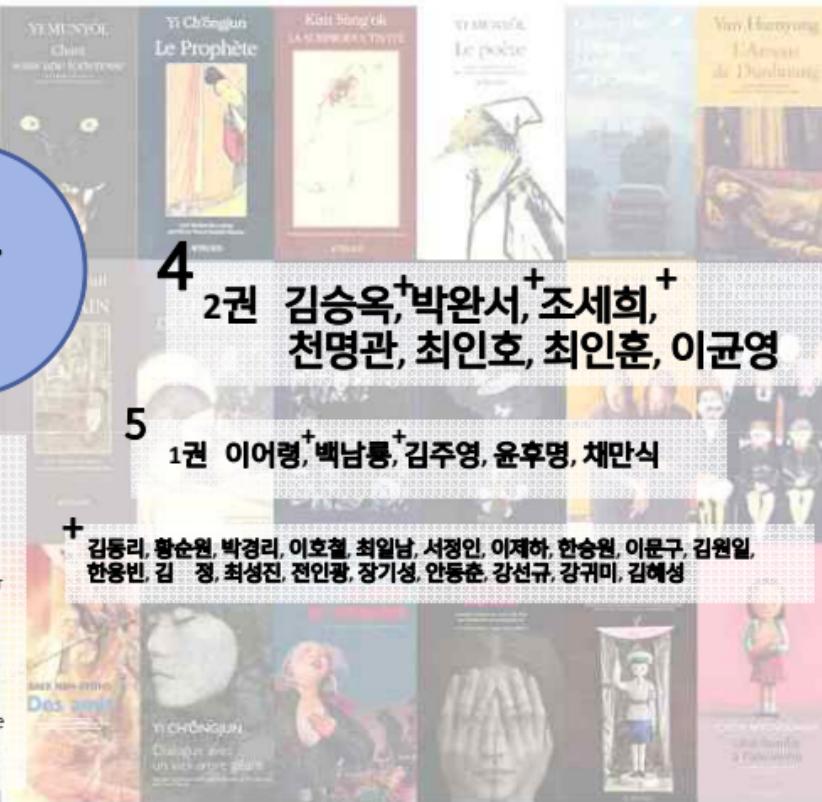
2권 김승옥⁺, 박완서⁺, 조세희⁺,
천명관, 최인호, 최인훈, 이균영

5

1권 이어령⁺, 백남룡⁺, 김주영, 윤후명, 채만식

+

김동리, 황순원, 박경리, 이호철, 최일남, 서정인, 이제하, 한승원, 이문구, 김원일,
한용빈, 김정, 최성진, 전인광, 장기성, 안동준, 강선규, 강귀미, 김혜성



2. Actes Sud '한국문학총서' 특징 분석

ACTES SUD

La maison Catalogue Actualités Libraires Communication Droits étrangers Maisons associées

Effacer tous les critères (-) coréen (-) Poche/Babel

AUTEURS

- Aucun(e) -

COLLECTION

Babel (3)

Cf. 이청준

* Les trois premiers publiés aux éditions Actes Sud (*L'Île d'Io* et *Le Prophète* étant repris en Babel), le dernier chez Cric-Racine.

“이어도,와 예언자,는 바벨’에서 재인쇄됨”
(이청준『환몽』서문, 8면 각주)

이문열

Résultats 1 - 3 sur 3

Le Poète

September, 2001
11.00 x 17.60 cm
256 pages
8.20€

최윤

CH'OE YUN

Là-bas, sans bruit, tombe un pétale

Avec cette neige gr

Novembre, 2000
11.00 x 17.60 cm
224 pages
8.20€

이문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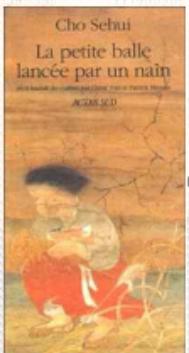
YI MUNYOL

Notre héros défiguré - L'oiseau aux ailes d'or - L'hiver cette année-l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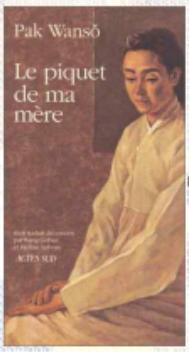
Juin, 1993
11.00 x 17.60 cm
272 pages
8.20€



2. Actes Sud '한국문학총서' 특징 분석



-중편 → 연작



-제목 변경



→ 표지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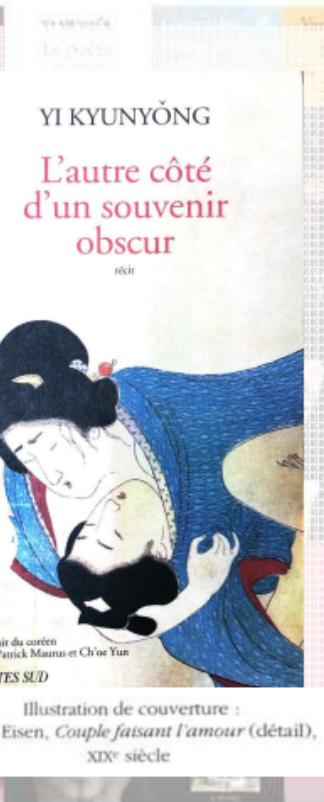


Illustration de couverture :
Ebaïs amoureux, époque K'ien-long (détail),
collection François Duhau de Béren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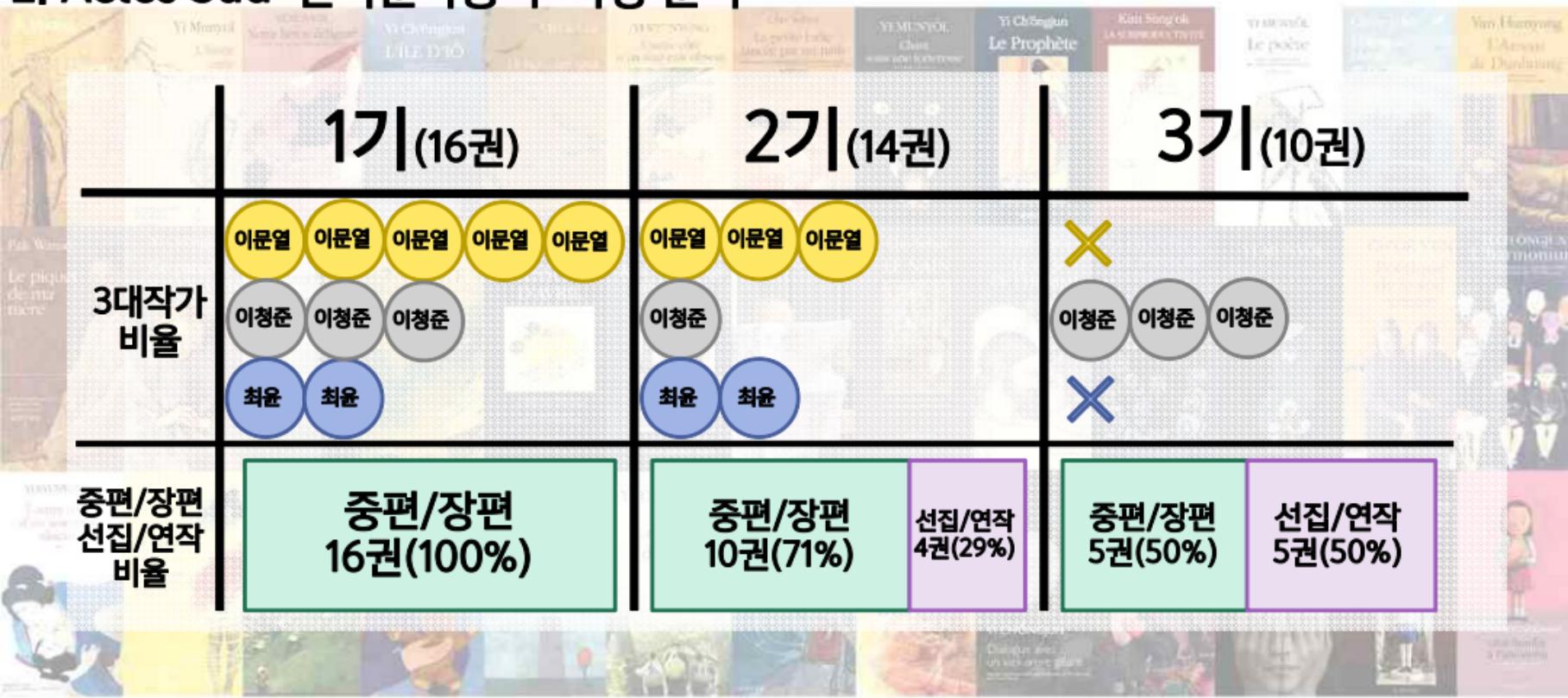
ACTES SUD

traduit du coréen
par Patrick Mauus et Ch'or Yun

ACTES SUD

Illustration de couverture :
Kesi Eisen, 'Couple faisant l'amour (détail),
XIX^e siècle

2. Actes Sud '한국문학총서' 특징 분석



3. Actes Sud ‘한국문학총서’의 파라텍스트 : ‘한국문학’을 초과하는 ‘한국문학’

● 총서 39권 중 서문(PRÉFACE/AVANT-PROPOS) 수록 20권, 발문(POSTFACE) 수록 10권, 인터뷰 수록 1권.

● 최미경, 「결텍스트의 메타텍스트성과 기능—한불 문학 번역 서문의 경우를 중심으로」, 『프랑스학연구』 제78호, 프랑스학회, 2016.

- “결텍스트에 대한 이정표적 연구인 주네트의 *Seuils*(입구)에서는, 결텍스트를 본문이 아닌 외부 공간으로, 전환과 교섭이 진행되는 공간, 표지 및 소개기사, 비평기사까지를 포함한 모든 비본문의 공간으로 이해한다.” (319면.)
- “한국문학이 소개될 때 제3의 작가가 서문 또는 후기를 담당한 경우는 극히 적다. 제3의 작가가 쓰는 서문이 가장 일반적인 프랑스와 대조를 이루는 현상이다. 주네트가 분석의 대상으로 삼은, 프랑스어 저작 서적의 경우는 물론 번역서의 경우도 해당 장르의 저명한 작가가 번역된 외국작가를 소개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경우에 따라서 작가가 번역도 진행한다.” (323면.)
- “한국 문화와 문학에 조예가 깊거나 전공한 프랑스 문인이나 문학전문가가 거의 없기 때문에 한불문학공간의 서문과 후기는 주로 번역가가 점유할 수밖에 없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323면.)

+ 남윤지, 「유영하는 텍스트의 안과 밖: 상호텍스트성 번역에 관한 몇 가지 쟁점」, 『번역학연구』 17(5), 한국번역학회 2016, 104면. 이청준 『흰 옷』 번역의 원문 삭제 양상과 관련하여 서문 언급.

3. Actes Sud ‘한국문학총서’의 파라텍스트 : ‘한국문학’을 초과하는 ‘한국문학’

● 서문

프랑스어 제목	원제	작가	서문 글쓴이
L'oiseau aux ailes d'or	금시조	이문열	CH'OE YUN, Patrick MAURUS
L'hiver, cette année-là	그해 겨울	이문열	CH'OE YUN
Là-bas, sans bruit, tombe un pétalement	저기 소리없이 한점 꽃잎이 지고	최윤	(1) Raymond Jean (PRÉFACE) (2) Patrick MAURUS (AVANT-PROPOS)
L'autre côté d'un souvenir obscur	어두운 기억의 저편	이균영	CH'OE YUN, Patrick MAURUS
Chant sous une forteresse	새하곡	이문열	CH'OE YUN, Patrick MAURUS
La surproductivité	다산성	김승옥	PIERRE CAMBON
Le poète	시인	이문열	CH'OE YUN, Patrick MAURUS
Avec cette neige grise et sale	회색 눈사람	최윤	Patrick MAURUS
Le nain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조세희	CH'OE YUN, Patrick MAURUS
Le fils de l'homme	사람의 아들	이문열	CH'OE YUN, Patrick MAURUS
Pour l'empereur !	황제를 위하여	이문열	Patrick MAURUS
Poétique de la soif	갈증의 시학	최윤	Patrick MAURUS
L'Harmonium	흰 옷	이청준	Patrick MAURUS
L'autre côté d'un souvenir obscur	어두운 기억의 저편	이균영	CH'OE YUN, Patrick MAURUS
L'île anonyme	익명의 섬	이문열	CH'OE YUN
Les Piquets de ma mère	엄마의 말뚝	박완서	Patrick MAURUS
La Baleine	고래	천명관	Patrick MAURUS
Des amis	벗	백남룡	Patrick MAURUS
Dialogue avec un vieil arbre géant	노거목과의 대화	이청준	Patrick MAURUS
Le rire de 17 personnes	열일곱 사람의 웃음	백남룡, 김정, 최성진, 전인광, 한웅빈, 장기성, 안동준, 강선규, 강귀미, 김혜성	Patrick MAURUS

3. Actes Sud ‘한국문학총서’의 파라텍스트 : ‘한국문학’을 초과하는 ‘한국문학’

● 발문

프랑스어 제목	원제	작가	발문 글쓴이
Notre héros défiguré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이문열	CHOE YUN, Patrick MAURUS
L'ile d'lo	이어도	이청준	CHOE YUN, Patrick MAURUS
L'amour de dunhuang	둔황의 사랑	윤후명	CHOE YUN
La chanteuse de P'ansori	-	김동리, 황순원, 박경리, 박완서, 이호철, 최일남, 서정인, 이어령, 이제하, 한승원, 이청준, 김승옥, 이문구, 김원일, 조세희	Patrick MAURUS
Sous le ciel, la paix !	태평천하	채만식	Patrick MAURUS
La Tour des fourmis	개미의 탑	최인호	Patrick MAURUS
Les Gens du sud	남도 사람	이청준	Patrick MAURUS
Le Bruit du tonnerre	천둥소리	김주영	Patrick MAURUS
L'azalée blanche	흰 철쭉	이청준	Patrick MAURUS
Une famille à l'ancienne	고령화 가족	천명관	Patrick MAURU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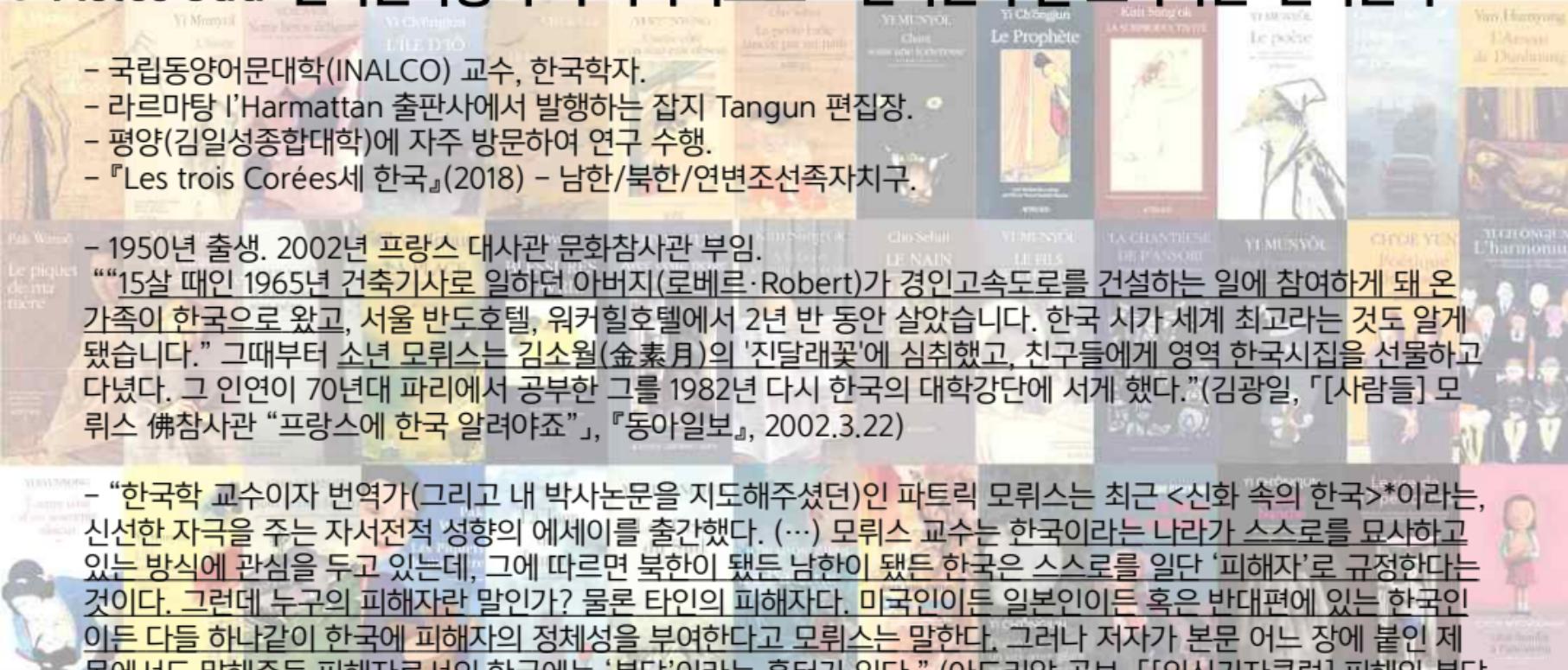
3. Actes Sud '한국문학총서'의 파라텍스트 : '한국문학'을 초과하는 '한국문학'

● 인터뷰

프랑스어 제목	원제	작가	인터뷰어
Blessures d'avril	환각의 다리	이어령	CHOE YUN, Patrick MAURUS



3. Actes Sud ‘한국문학총서’의 파라텍스트 : ‘한국문학’을 초과하는 ‘한국문학’



- 국립동양어문대학(INALCO) 교수, 한국학자.
- 라르마탕 l'Harmattan 출판사에서 발행하는 잡지 *Tangun* 편집장.
- 평양(김일성종합대학)에 자주 방문하여 연구 수행.
- 『Les trois Corées 세 한국』(2018) - 남한/북한/연변조선족자치구.

- 1950년 출생. 2002년 프랑스 대사관 문화참사관 부임.

“15살 때인 1965년 건축기사로 일하던 아버지(로베르·Robert)가 경인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일에 참여하게 돼 온 가족이 한국으로 왔고, 서울 반도호텔, 워커힐호텔에서 2년 반 동안 살았습니다. 한국 시가 세계 최고라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소년 모뤼스는 김소월(金素月)의 '진달래꽃'에 심취했고, 친구들에게 영역 한국시집을 선물하고 다녔다. 그 인연이 70년대 파리에서 공부한 그를 1982년 다시 한국의 대학강단에 서게 했다.”(김광일, 「[사람들] 모뤼스 佛참사관 “프랑스에 한국 알려야죠”」, 『동아일보』, 2002.3.22)

- “한국학 교수이자 번역가(그리고 내 박사논문을 지도해주셨던)인 파트릭 모뤼스는 최근 <신화 속의 한국>*이라는, 신선한 자극을 주는 자서전적 성향의 에세이를 출간했다. (...) 모뤼스 교수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스스로를 묘사하고 있는 방식에 관심을 두고 있는데, 그에 따르면 북한이 됐든 남한이 됐든 한국은 스스로를 일단 ‘피해자’로 규정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누구의 피해자란 말인가? 물론 타인의 피해자다. 미국인이든 일본인이든 혹은 반대편에 있는 한국인 이든 다들 하나같이 한국에 피해자의 정체성을 부여한다고 모뤼스는 말한다. 그러나 저자가 본문 어느 장에 붙인 제목에서도 말해주듯 피해자로서의 한국에는 ‘분단’이라는 흉터가 있다.” (아드리앙 공보, 「[외신기자클럽] 피해와 분단 그리고 타자」, 『씨네21』, 2011.1.12)

* *La Corée dans ses fables*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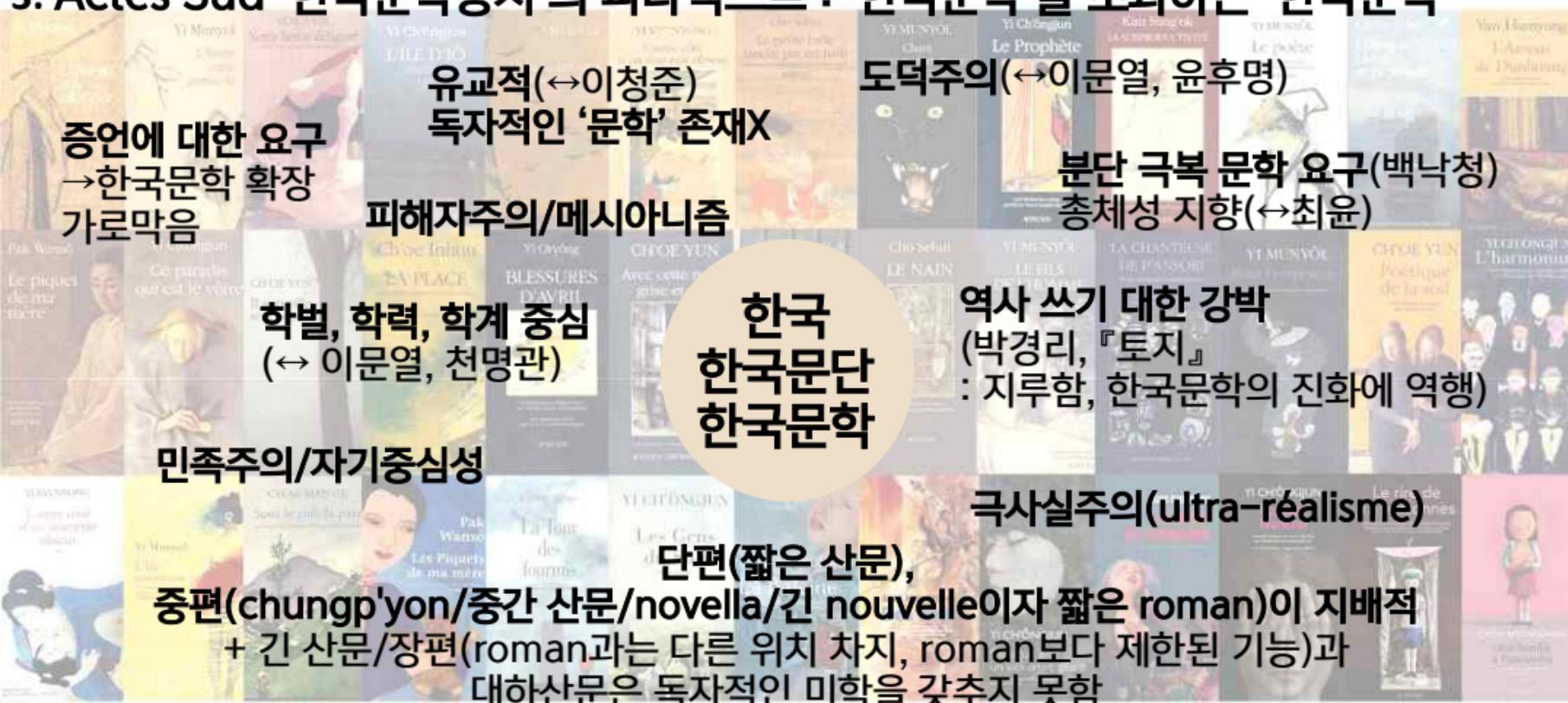
3. Actes Sud '한국문학총서'의 파라텍스트 : '한국문학'을 초과하는 '한국문학'

- “조세희와 이문열, 이청준, 김승옥 등의 소설을 번역했지만 늘 내가 좋아하는 작품만 선택한 건 아닙니다. 가장 한국적인 것을 골랐을 뿐입니다. 한국문학의 미학적 리듬은 호흡이 짧다는 겁니다. 구운몽이 예외이기는 하지만 춘향전이나, 흥길동전이나 대부분 중·단편 아닙니까. 장편, 대하소설은 한국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깊이나눈대화] “한국의 미학적 리듬은 짧은 호흡”, 『경향신문』, 2002.5.15.)

- “더 많은 비슷한 종류의 한국책을 소개하기를 원하는 사장과 자신의 갈등을 소개한 모뤼스는 곧바로 ‘한국의 책 100’에 대한 비판으로 옮겨갔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유럽에서는 편집자들이 직접 책을 선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 편집자나 관계자들의 정보와 통찰력 등의 정보는 절실하지만 최종적으로 출판할 책을 선정하는 것은 프랑스, 즉 현지의 편집자가 할 뜻이란 것이다.” (‘현지 독자 요구·성향 무시하면 백전백패’-프랑스 한국문학담당자, <한국도서 저작권 해외 마케팅 방안>포럼서 쓴소리, 『출판저널』 356, 대한출판문화협회, 2005, 38면.)

- 한국인들의 지극히 민족주의적인(그러므로 이데올로기적인) 경향성. 한국은 프랑스인에게 한국문학이 무엇이어야 하는지 결정하고 싶어한다. 많은 후원자들이 작가 선택을 강요하려 한다. 이 총서는 원칙을 가지고, 한국문학에 대한 파노라마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편집의 용기가 필요했다. (『L'Harmonium흰옷』 서문)

3. Actes Sud '한국문학총서'의 파라텍스트 : '한국문학'을 초과하는 '한국문학'



3. Actes Sud ‘한국문학총서’의 파라텍스트 : ‘한국문학’을 초과하는 ‘한국문학’

프랑스어 제목	원제	서/발문	서문/발문 글쓴이
L'oiseau aux ailes d'or	금시조	서문	CH'OE YUN, Patrick MAURUS
L'hiver, cette année-là	그해 겨울	서문	CH'OE YUN
Notre héros défiguré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발문	CH'OE YUN, Patrick MAURUS
Chant sous une forteresse	새하곡	서문	CH'OE YUN, Patrick MAURUS
Le poète	시인	서문	CH'OE YUN, Patrick MAURUS
Le fils de l'homme	사람의 아들	서문	CH'OE YUN, Patrick MAURUS
Pour l'empereur !	황제를 위하여	서문	Patrick MAURUS
L'île anonyme	익명의 섬	서문	CH'OE YUN (?)

3. Actes Sud ‘한국문학총서’의 파라텍스트 : ‘한국문학’을 초과하는 ‘한국문학’

L'île d'lo	이어도	발문	CH'OE YUN, Patrick MAURUS
Le prophète	예언자	-	-
Ce paradis qui est le vôtre	당신들의 천국	-	-
L'Harmonium	흰 옷	서문	Patrick MAURUS
Les Gens du sud	남도 사람	발문	Patrick MAURUS
Dialogue avec un vieil arbre géant	노거목과의 대화	서문	Patrick MAURUS
L'azalée blanche	흰 철쭉	발문	Patrick MAURUS

3. Actes Sud '한국문학총서'의 파라텍스트 : '한국문학'을 초과하는 '한국문학'

Là-bas, sans bruit, tombe un pétale	저기 소리없이 한점 꽃잎 이 지고	서문(préface)	1. Raymond Jean
		서문(avant-propos)	2. Patrick MAURUS
Il surveille son père	아버지 감시	-	-
Avec cette neige grise et sale	회색 눈사람	서문	Patrick MAURUS
Poétique de la soif	갈증의 시학	서문	Patrick MAURUS



3. Actes Sud '한국문학총서'의 파라텍스트 : '한국문학'을 초과하는 '한국문학'

1. 『금시조』(1981/1990)

2. 『그해 겨울』(1979/1990)

3.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1987/1990)

4. 『새하곡』(1979/1990)

5. 『시인』(1990/1992)

아웃사이더(월북한 아버지, 중퇴)

분석적

한국의 복잡성을 소설화

거리두기, 낯설게하기, 소격효과

모호성(독자에게 질문을 던짐)

리얼리즘을 활용하되 도덕주의와는 무관
동양-서양 연결하는 역할(동양고전 독학)

7. 『황제를 위하여』(1980-1982/1998)

한국인들의 역사 다시 쓰기 욕망 풍자

이문열

6. 『사람의 아들』(1979/1995)

사실주의적인 관행으로 지나친 반복
역사적, 문학적 오류가 많음

8. 단편 선집 『익명의 섬』(2003)

- 구로 아리랑(1987)

- 알 수 없는 일들(1981)

- 익명의 섬(1982)

- 사라지는 것들을 위하여(1979)

- 필론의 돼지(1980)

위의 소설들 이후,

90년대 소설들부터는 모호성이 사라짐

문학의 유교적 실천을 믿음

사실주의적 틀 안에서만 진화했기 때문

3. Actes Sud '한국문학총서'의 파라텍스트 : '한국문학'을 초과하는 '한국문학'

이청준

이문열

최 윤

- 전라도 출신

- 한('ressentiment'이지만, '원한'은 아닌)
→ 강박적, 반복적.

- 기억의 문제.

- 분석적, 형식주의적.

- 『남도 사람(들)』 연작: 가장 한국적
- 한국 최고의 작가이자
파벌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던 사람

- 번역가(뒤라스, 토도로프, 기호학)

- 불문과 교수

- 프랑스어와 프랑스 문화에 대한 완벽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독자적인 소설 미학
→ 한국의 타자성 잘 전달
- 한국의 누보 로망
- 「아버지 감시」: 하나의 '한국'에 대한 지향에서
한 발 나아간 작품

4. 남은 과제들



2022년 11월,
아를의 악트 쉬드 서점 아시아문학 코너

Re: Formulaire de Contact
[Site Actes-Sud.fr] [외부 링크](#)

Commercial Actes Sud 1월 19일 ← ...
받은사람: 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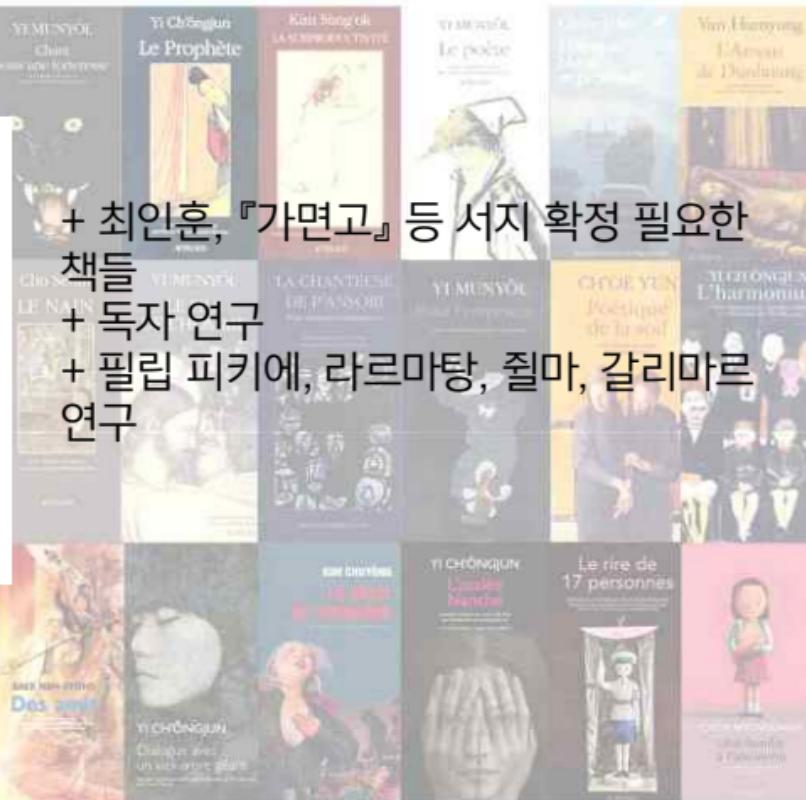
Bonjour,

Oui ce titre est paru le 1 février 1996, il est maintenant épuisé.

Oui il est paru dans la collection « Lettres coréennes »

Cordialement,

La Tour des fourmis *Les Gens du Sud* *Yi Munyôl* *La Ballerine*
Des amis *Yi Chöngjun* *Des amis* *Yi Chöngjun*
Des amis *Yi Chöngjun* *Yi Chöngjun* *Yi Chöngjun*



+ 최인훈, 『가면고』 등 서지 확정 필요한 책들
+ 독자 연구
+ 필립 피키에, 라르마탕, 줄마, 갈리마르 연구

4. 남은 과제들



감사합니다!